

2010. 09. 28

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중일 철강경쟁구도 변화와 시사점

박현성, 최동용, 이상규

Executive Summary

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중일 철강경쟁구도 변화와 시사점

-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이며, 성장 속도 면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
 - 세계 10대 철강사 중 8개사가 동아시아에 포진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들이 동아시아 철강시장에서 격전
 - 철강 및 원료의 가격 결정, 신에 제철소 건설, 혁신 철강기술 개발 경쟁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심 센터로 급부상
-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2000년대 후반기부터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2008년 기준으로 총 4,000만 톤을 순수출하는 지역으로 전환
 - 특히 2010년 들어 중국의 철강 수출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6월에 562만 톤을 수출하면서 한국과 동남아를 타깃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
 - 일본도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전개하면서 2010년 6월 현재 연산기준으로 5,000만 톤에 육박
 - 이에 따라 역내에서 최대 순수입 시장인 동남아에서 중국과 일본, 한국의 3파전 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대
- 향후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역내 철강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, 대형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과점시장 예상
 -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은 중장기적으로 6,000만 톤을 목표로 설비 신증설을 추진하고 일본 철강사들도 3,000만 톤~4,000만 톤 체제를 계획 중
 - 이들 철강사들의 주요 목표 시장은 자국 뿐만 아니라 역내 시장이며, 핵심은 동남아 시장과 한국 시장이 될 전망
- 한국 철강산업은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악화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할 경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
 - 따라서 한국 철강산업은 내수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시장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개발, 차별적 제품우위,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



1. 세계 철강의 Mecca로 부상한 동아시아.....	1
2. 점증하는 경쟁심화 조짐.....	3
3. 향후 One Market화 대경쟁의 시대로.....	7
4. 한국 철강산업 영향과 시사점	9

1. 세계 철강의 Mecca로 부상한 동아시아

□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이며, 속도 면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 시현

- 2008년 기준으로 세계 철강시장의 규모는 13억 톤이며, 이 중에서 동아시아는 6억 5,000만 톤을 소비하여 전체 50%를 차지
 - 주요 국가의 철강시장 성장속도를 보면, 중국은 2000년에 1억 3,800만 톤에서 2008년 4억 5,300만 톤으로 3.3배 증가하였고, ASEAN6국은 3,000만 톤에서 5,500만 톤으로 1.8배 증가하여 동아시아 전체로는 2.3배 증가
 - 이는 세계 전체의 철강시장 증가속도가 같은 기간 동안 1.5배인 점을 비추어보면 동아시아 철강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
- 세계 철강시장의 중심 축이 21세기 들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,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
 - 선진국의 철강 정점기의 인당 철강소비량이 인당 500kg~600kg이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할 경우, 현재 중국의 인당 철강소비량은 341kg, 인도네시아는 51kg으로 장기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

□ 또한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철강 플레이어들의 격전장

- 세계 10대 철강사 중에서 동아시아 철강사들이 2005년에 4개사에 불과하였으나, 2009년에는 무려 8개사가 진입
 - 세계 1위인 아르셀로미탈과 10위인 인도의 타타를 제외하고는 2위~9위까지가 모두 동아시아 철강사
 - 중국은 하북강철, 상해보강, 무한강철그룹, 안본강철, 사강그룹 등 5개 철강사가 10위 내에 있으며, 한국은 포스코, 일본은 신일본제철과 JFE 등

이 10위 내에 포함

- 동아시아 철강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금번 글로벌 위기로 많은 구미권의 철강사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했으나, 한국, 중국, 일본의 철강사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영성과를 시현. 이는 동지역 철강사들의 원가 우위를 반증

<권역별 주요 철강사들의 수익성 비교>

	포스코	신일본제철	JFE	상해보강	아르셀로미탈	티센크루프
2006	17%	15%	17%	13%	13%	5%
2007	16%	13%	15%	10%	15%	7%
2008	17%	11%	14%	5%	11%	6%
2009	10%	7%	10%	5%	1%	-4%

자료: Thomson One Analytics(2010)

□ 철강 및 철강원료의 가격 결정, 신예 제철소, 혁신 기술 등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심 센터로 급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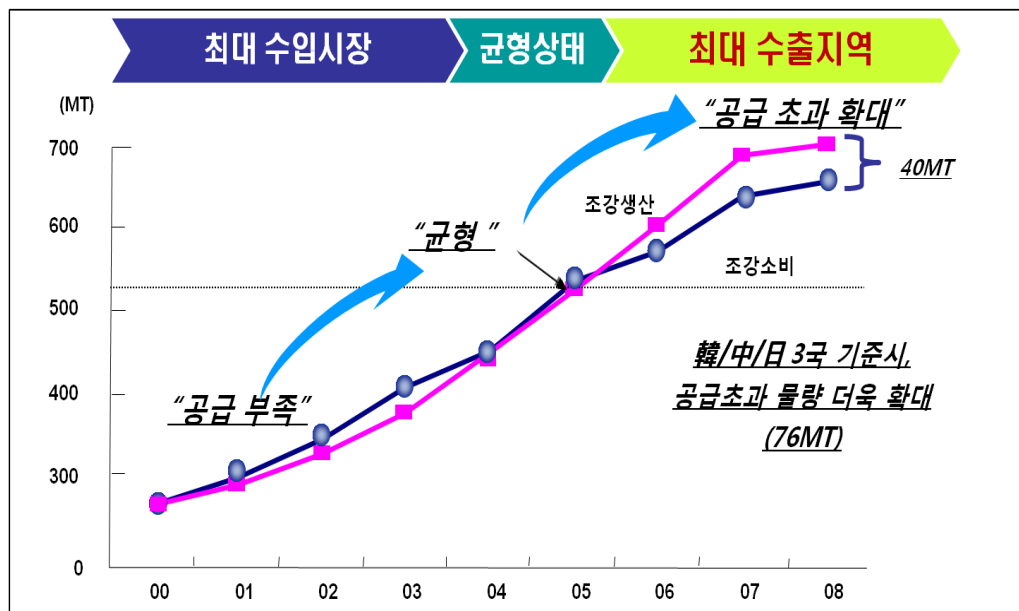
- 전통적으로 글로벌 철강 제품의 가격은 미국과 유럽의 내수가격이나 수출가격이 주도하였으나, 200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철강산업 내에서의 철강가격 변화가 세계 철강가격을 선행 또는 주도하는 패턴으로 변화
- 철강수요와 공급 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철강원료들의 동아시아 비중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원료가격의 결정도 동아시아에서 결정되는 가격들이 표준이 되고 있음
 - 철광석은 해상 물동량 기준으로 2009년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84%를 차지하고 원료탄은 52%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
-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예 대형 제철소의 건설도 상당 비중이 중국, 한국, 동남아 등지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파이넥스, 코렉스 등 신예 철강 프로세스 개발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

2. 점증하는 경쟁심화 조짐

□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역내 철강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공급초과 물량이 확대 추세

- 한국, 중국, 일본, 아세안 6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철강수급을 보면,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연간 1,000만 톤~3,000만 톤 규모의 철강재 공급이 부족해 역외 지역에서 철강재를 순수입
-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부터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면서 2008년 기준으로 총 4,000만 톤을 순수출하는 지역으로 전환
- 국별로 보면, 내수 정체로 만성 순수출 국가인 일본의 철강 오버 플로우가 2006년 부터 중국으로 확대되는 등 순수출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
- 또한 낮은 철강 자급도로 인해 매년 3,000여 만 톤의 철강재를 순수입하는 아세안 6국을 제외한 동북아 3국 기준으로 보면, 철강 순수출 규모는 7,600만 톤에 도달

<동아시아 2005년을 기점으로 공급초과 확대로 전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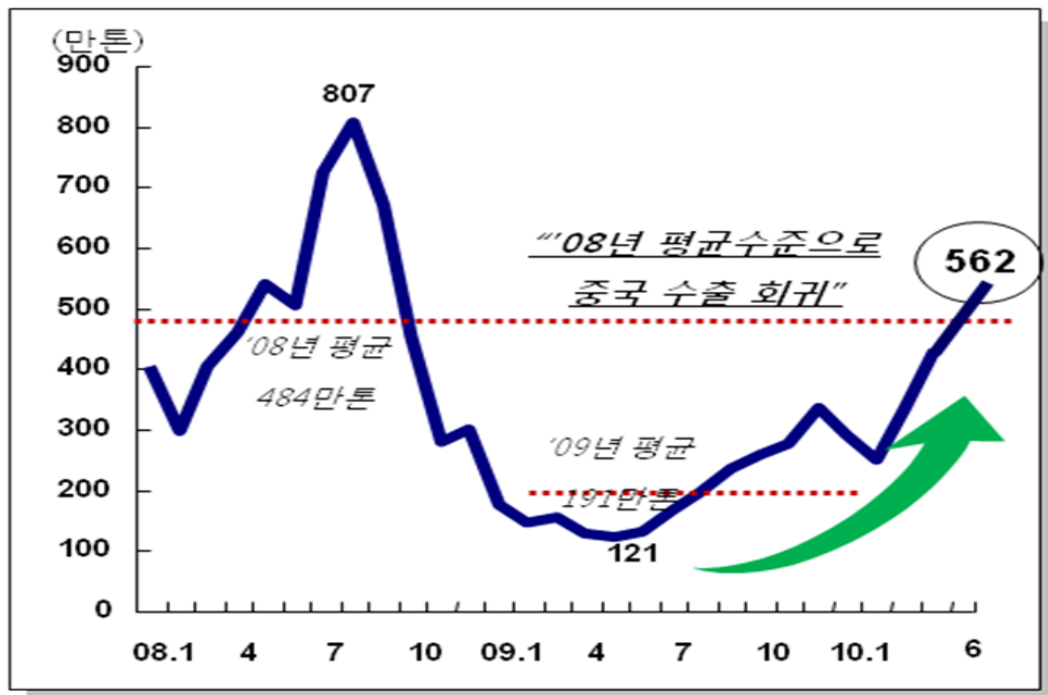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worlsteel(2009)

□ 중국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철강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초반을 기점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

- 2010년 6월 철강수출량은 562만 톤으로 확대되어 과거 중국 철강 역사상 최대 수출물량을 기록했던 2008년 월 평균인 484만 톤을 이미 상회. 철강수요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를 넘는 생산 증가 등에 기인하여 수출이 빠르게 증가
- 특히 중국 철강사들은 한국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. 중국 내륙보다는 연안 지역에 철강 설비증강의 70%가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동남아 시장이 주요 수출 타깃화
- 특히 한국은 중국의 최대 철강수출 시장으로서 최근 중국 철강사들은 한국에 판매망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. 현재 상해보강, 안변강철, 수도강철 등 중국의 최대 철강사들 이외에도 반지화강철, 마안산강철 등도 한국 지사 설립을 검토 중

<2010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철강수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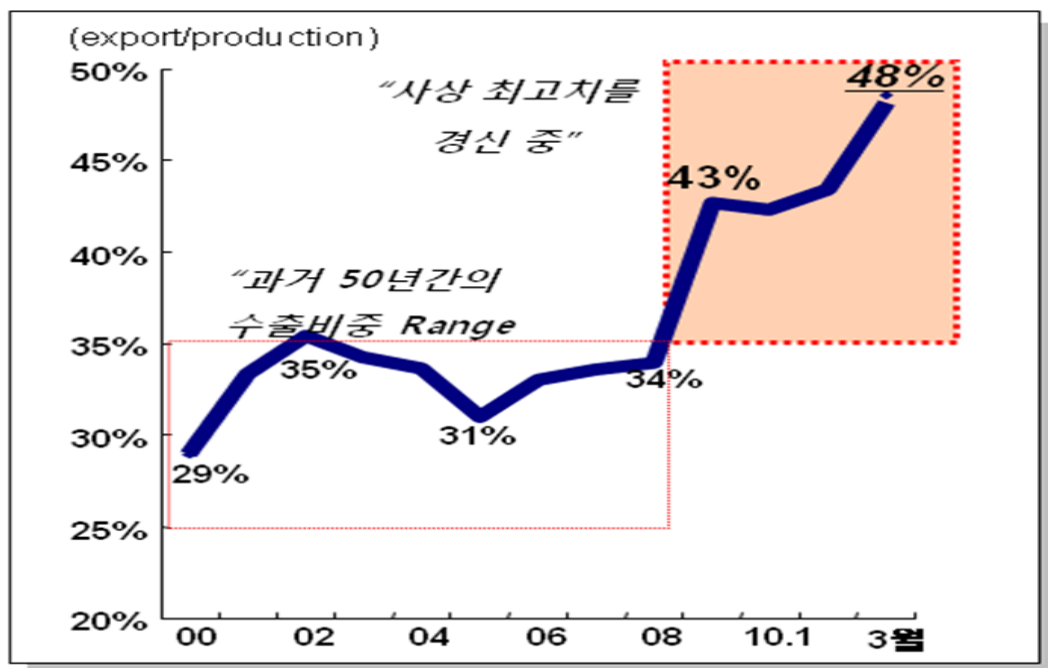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MN(2010.8월)

□ 일본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전개하면서 2010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4,500만 톤 내외 예상

- 일본 철강산업의 경우, 엔고 및 내수 부진으로 자국 내 소비는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강생산을 늘리면서 적극적인 수출 공세
- 일본 철강산업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30% 내외를 기록하였으나,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 3월에는 48%를 기록하며 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
- 중요한 점은 일본 철강사들의 핵심 시장도 한국과 아세안이라는 점임.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, 일본은 한국에 28%, 아세안에 23%, 중국에 19%를 수출하여 아시아를 대상으로 전체에서 80%의 물량을 수출

<일본 철강수출 비중이 50%에 근접>



자료: 일본철강연맹(20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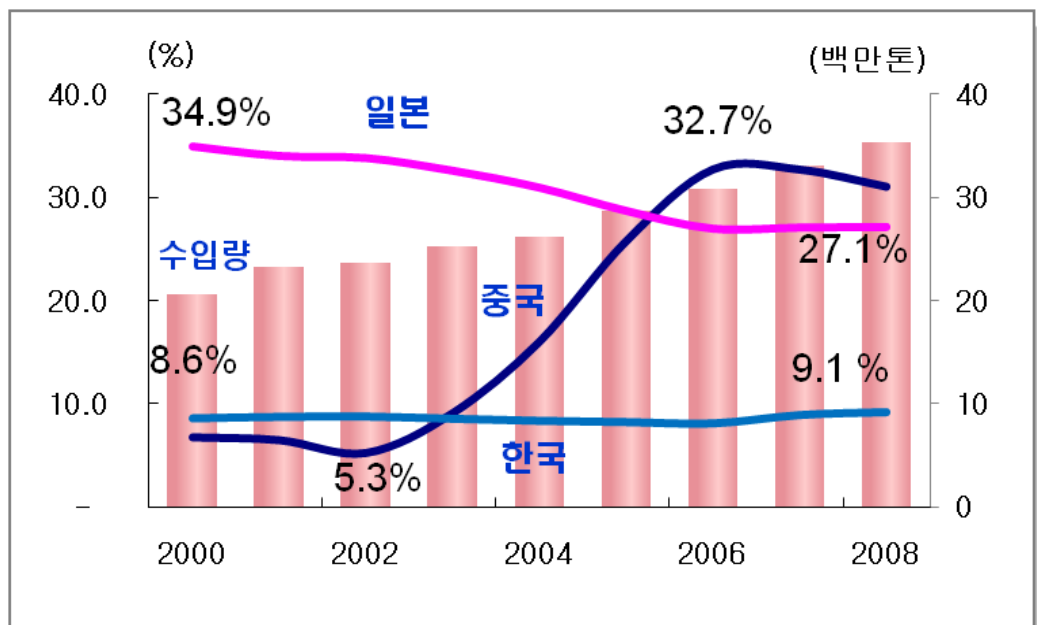
□ 한국도 지금까지는 철강수급이 전체적으로 균형 상태를 보였으나, 공급과잉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중

- 한국의 철강수급은 2008년까지 6,000만 톤으로 균형 상태를 보여왔으나, 글로벌 위기 이후 철강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, 신규 철강설비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

□ 한편 역내에서 최대 순수입 시장인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, 일본의 3파전 양상 속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대

- 중국은 2003년부터 동남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높이는 중이며, 봉형강류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최근에는 판재류 등의 수출로 제품의 영역을 확대
- 이에 따라 동남아 철강수입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비중은 30%를 넘어서고 있으며, 일본은 다소 하락하여 20%대 후반을 기록 중임. 한국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10%에 못 미치는 시장점유율을 지속

<동남아 철강수입시장에서의 한·중·일 시장 점유율>



자료: ISSB 각 년도 자료 종합, 실선은 3년 이동평균

3. 향후 One Market화 대경쟁 시대로

□ 동아시아 철강시장은 앞으로 과잉 물량의 해소를 위한 상호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
- 중국의 연안 철강설비의 신증설 집중과 함께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른 물류 코스트의 하락 그리고 FTA와 EPA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, 일본의 철강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될 전망
-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철강 과잉 물량(=생산능력-소비)를 추정해 보면,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내에서 철강 판매에 대한 경쟁 심화 불가피
-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 과잉능력은 2억 톤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, 일본은 5,000만 톤 가량의 과잉능력을 보유하고 한국은 수급이 균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, 동북아 3국의 철강 과잉능력은 2억 5,000만 톤을 상회
-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중기적인 설비 신증설 추세와 철강소비의 증가세 둔화를 감안하면 2012년까지 동북아 지역의 철강 과잉능력은 3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
- 특히 지금까지의 역내 교역 추세와 중력법칙에 따른 인근 수출입 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, 공급 초과 물량의 절반 이상은 동아시아 역내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하는 상황 불가피

□ 한편 동아시아 역내 철강사들은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어 치열한 과점경쟁이 예상

-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, 예를 들면 상해보강, 하북강철, 무한강철그룹, 안본강철 등은 현재 3,000만 톤 대의 철강설비를 중장기적으로 6,000만 톤 수준을 목표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, 이외의 산둥강철, 수도강철 등도 3,000만 톤 이상이 목표
- 일본의 신일본제철도 4,000만 톤을 목표로 철강설비를 늘리고 있으며, JFE도 3,000만 톤 이상을 계획
- 한국의 주요 철강사들도 국내에서 각각 1,000만 톤에서 500만 톤의 철강설비 신설을 추진 중

- 한중일 3국의 대형 철강사 11개사의 철강설비능력은 중장기적으로 5억 톤을 상회하면서 역내 시장에서 약 50% 이상을 점유 예상
-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동북아 철강사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확보 차원의 철강설비 능력을 확장하고 있어 시장 구조상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과점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

<동아시아 내 치열한 철강설비 능력 확장 경쟁(백만 톤)>

국가	회사명	'09년 조강생산	중장기 목표
중국	寶鋼	38.9	66+ α
	河北	40.2	60
	武漢	30.3	60
	鞍本	29.3	60
	山東	21.3	30
	沙鋼	26.4	30
	首都	17.3	30
일본	NSC	24.3	40+
	JFE	23.5	33
한국	POSCO	31.1	40+
	현대제철	8.4	20+

자료: 각 회사 자료 종합

□ 동아시아의 유일한 순수입 시장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철강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될 전망

- 동남아 철강수요는 자동차, 건설,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연 9% 내외 성장한 반면, 철강설비의 신설은 자금 및 기술의 부족으로 그 속도가 지연되어 세계 최대의 철강 순수입 시장으로서의 지위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
-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, 일본 철강사들은 동남아 철강 고객을 확보하고자 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

4. 한국 철강산업 영향과 시사점

- 한국 철강산업은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악화로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
 - 동아시아 철강시장의 경쟁환경은 철강공급 물량의 확대, 하나의 철강시장으로의 점진적 통합, 철강공급 측면에서의 과점화 진전, 중국 철강사들의 대형화, 글로벌화, 유일한 순수입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의 경쟁 격화 등으로 요약
 - 이러한 철강 경쟁환경의 악화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은 역내 수출확대 전략의 제약, 국내 경쟁 심화, 동남아 철강시장에서의 입지 약화 등의 위험에 노출 가능성

<동아시아 철강 경쟁환경의 변화와 한국 철강산업 영향>



- 한국 철강산업은 내수 시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시장 전략을 확대하는 동시에, 혁신적인 철강 기술개발과 차별적인 제품 개발, 경쟁력 제고 전략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 필요

박현성 (e-mail: hypark@posri.re.kr)

최동용 (e-mail: dychoi@posri.re.kr)

이상규 (e-mail: leesk@posri.re.kr)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